

꿈꾸지 않으면

양희창 작사
장혜선 작곡

Fmaj7 Gm7 C7 Fmaj7 Gm7

꿈 꾸 지 않 으 면 사 는 게 아니 라고 별 헤 는 맘 으 로 없 는 길 가 려 네 사 랑

Am Dm Gm7 C7 Am Dm Gm7

하 지 않 으 면 사 는 게 아니 라고 설 레 는 마 음 으 로 날 선 길 가 려 하

C7 Fmaj7 Gm7 C7 Fmaj7

네 아 름 다 운 꿈 꾸 며 사 랑 하 는 우 리 아 무 도 가 지 앓 는 길

Gm7 C7 Am Dm Gm7 C7 Gm

가 는 우 리 를 누 구 도 꿈 - 꾸 지 못 한 우 리 들 의 세 상 만 들 - 어 가

C7 F /A Bb C7 F /A

네 배 운 다 는 건. (배운 다 는 건) 꿈 을 꾸 는 것 . 가르 친 다 는 건 (가르 친 다 는 건)

Bb C7 F /A Bb C7 F /A

희 망 을 노 래 하 는 것 배 운 다 는 건 (배운 다 는 건) 꿈 을 꾸 는 것 . 가르 친 단 는 건 (가르 친 단 는 건)

Bb C7 F Am Bb F Dm

희 망 을 노 래 하 는 것 - 우 름 알 고 있 네 우 름 알 고 있 네 배 운 다 는 건 가르 친 다 는 건

Gm7 C7 F

희 망 을 노 래 하 는 것

‘사랑’과 ‘자발성’의 제천간디학교 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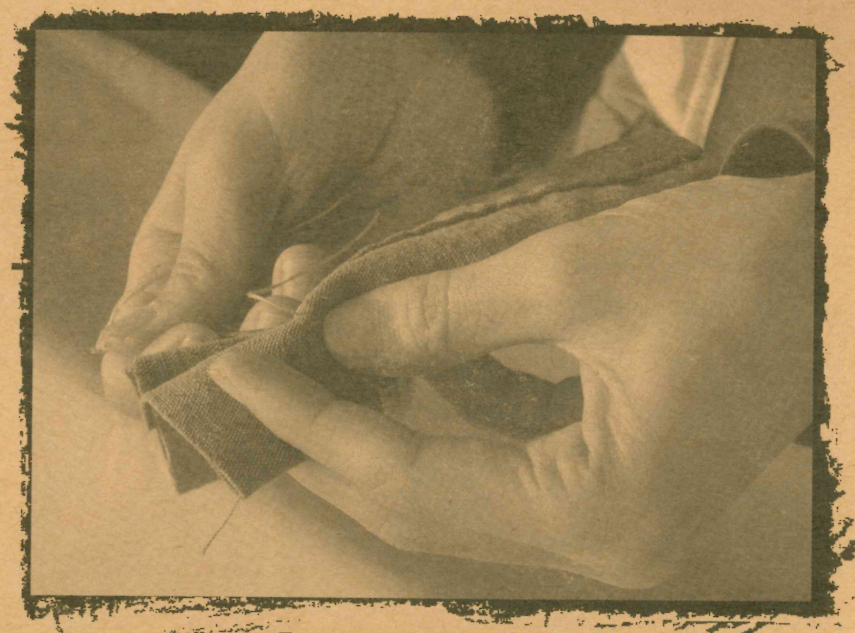
계간 간디IN 발행일 2008년 10월 15일 통권 제9호 (2008년 가을호)
발행처 제천간디학교 신문부 '일상다반사'

2008 가을



제천간디학교

<http://gandhischool.org>



왼손과 오른손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보듬고, 두 손으로 일하고, 두 손으로 품습니다.
두 손이 어울려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있어 가슴 든든합니다.
두 손으로 열싸안아 따스합니다.
두 손이 있어 다시 용기를 냅니다.
너와 나는 다른 한쪽 손입니다.
서로가 두 손의 눈물겹고 극진한 관계가 되어 살아갑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답습니다.

- 간디인



사진 | 생활교사 강미리 · 글 | 이현무 기자(2학년)

| 표지사진 이야기 |
함박웃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번 가을도 재밌고 신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제천간디학교 소식지 **계간**



2008년 10월 · 제9호(가을)

빛그림이 있는 이야기	02	왼손과 오른손 간디인
여는 글	04	나의 첫 보금자리를 떠나며 서은혜
주제가 있는 이야기	08	사랑을 외치다~! 장춘봉
첫사랑	10	현재진행형 -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3학년
	12	나의 꼬꼬마 애인 이송현
	14	봉숭아 물 들이기 전지우
강강수월레단 강 순례기	16	물의 길, 생명의 길 이슬비
교과속으로 1	18	마음의 학문, 마음공부 홍지인
교과속으로 2	20	수학교실 풍경 김수자
동아리한마당	24	여학우들의 희망, 생리통 김은정
간디인이 만난 사람	26	새로오신 푸릇푸릇한 생활 사감쌤 김유진
사설 1	28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하면서 조하늘
사설 2	30	'105개의 자유로운 성과 조화' -학생 수 80명+선생님 수 25분 이슬비
간디인 짧은 소식	32	간디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MS후원회원	35	

| 발행일 2008년 10월 20일 | 발행인 양희창 | 만든지 제천간디학교 신문부 '일상다반사' |

| E-mail aaaa0_0@hanmail.net | 주소 390-852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 1리 92-3 |

| 전화 043-653-5792 | 전송 043-653-5781 |

나의 첫 보금자리를 떠나서

서은혜 _ 간디학교 교사(영어담당)

여기는 시골이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달이 시원스럽게 떠있다. 여름이 되니 녹음이 우거진 산들이 학교 앞으로 병풍을 치고 여기 저기 곳곳에 펼쳐진 반듯한 논과 밭, 그 속에서 사는 다양한 산새와 들새소리, 개구리소리, 풀벌레소리... 무엇보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청명한 맛을 가진 바람... 초여름 잘 익은 달큰한 김밥은 오디와 새콤한 산딸기를 따서 먹고 효소를 담그며 참 행복하다 했다. 여름과 가을의 경계에 있는 지금은 노오란 벼들이 고개를 더욱 숙이고 달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개구리 소리를 대신한다.

이 집을 어렵게 구했다. 마치 쓴 탕약을 마시듯이 이 집과 만났다. 예전 마을회관으로 쓰던 이 건물은 새마을회관이 들어서고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어른 여럿이 모여 놀 수 있을 만한 큰 방 두 칸과 그 사이 창문 없이 좁은 부엌 그리고 샤워만 가능한 작은 욕실이 있었다.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한 집을 싹싹 청소하며 그래도 새로운 나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며 작은 행복을 느꼈던가. 화장실은 집 바깥으로 나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불도 없는 시멘트벽으로 둘러싸인 푸세식이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에겐 이사를 가야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는 이 화장실은 현관문에서 다섯 발자국이면 닿을 거리지만 나에게겐 힘든 천릿길만 같다. 그건 이집의 위치와 역사에 근거한다. 마을회관이기에 바로 길옆에 있어 문을 열고 나가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듯한 낡아 헤진 소파 두개가 나란히 문 옆을 지키고 있어 동네 할아버지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준다. 일요일 오전, 나의 늦잠을 깨우는 것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할아버지들 그리고 바람에 밀려들어오는 담배연기와 가래 끌어올리는 소리. 잠옷을 입고 까치집 머리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 인사를 정중히 드리며 아침 화장실을 가는 것이 늘 쉽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었고 거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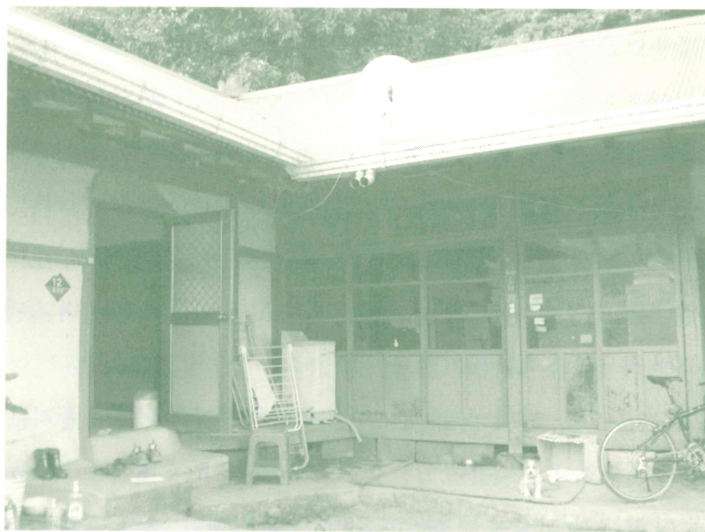
보며 머리도 정돈했으며 그리고 나면 오랜만에 느끼는 변기는 사라지기 일쑤. 그래서인지 변비는 1학기 내내 늘 나와 함께 했다.

퇴근해 집에 와 방에 불을 켜면 젤 먼저 사방의 벽들을 재빨리 훑어보고 방바닥도 날카롭게 살핀다. 매일 밤마다 출몰하는 벌레들에 대해 이젠 제법 놀라지 않고 뭉쳐진 신문으로 통하고 내리치거나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잡아 밖으로 보내준다. 그러나 조용한 밤 램프를 켜고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문 쪽에서 사각 거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일정하게 나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 그쪽으로 다가 가는데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새끼 뱀만 한 지네가 문지방을 넘고 있는 중이었다. 기겁한 나는 경수샘에게 SOS를 치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자꾸 내 침구 쪽으로 다가오는 지네를 그냥 둘 수 없어 재빨리 화장실에 가서 세숫대야를 들고 와 덮어버렸다. 잠시 후 경수샘이 오셔서 집게로 잡아 밖으로 보내주셨다. 경수샘도 그렇게 큰 건 처음 봤다고 하시며 물려도 벌에 쏘인 것 같이 붉고 아픈 정도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시며(사실 그 얘기 듣고 더 겁났었다) 다음날 잡아서 말리면 약재로 팔 수 있다는 농담도 덧붙여 주셨다. 그날 밤은 자는 등 마는 등 두근거리는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조그마한 소리에도 불을 켜고 꼭 살피는 새로운 내 습관과 살피고도 찢찢한 나의 기분은 종종 나를 바늘처럼 세워 아프게 했다.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제비 한 쌍이 와 처마에 둥지를 틀고 아침마다 지지 배배로 나의 하루를 열어주었다. 제비들이 알을 낳고 5마리 새끼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찬바람이 부는 내 마음에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제비가족과 더불어 연구소의 인턴으로 와 있었던 동실샘. 2월의 끝에 우리 같이 입주하던 날 고장 난 보일러로 그 추웠던 밤을 함께 떨며 지새웠던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동거는 시작되었다. 난 종종 긴급하게 등실샘을 부르곤 했다. 그러면 열아홉 등실샘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와 나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다리가 많은 밤손님들을 조용히 밖으로 인도해주었다. 등실샘은 나에게 그때만큼은 영웅이었다. 등실샘이 지난 봄에 있었던 청소년 강순례 '강강수월래'로 집을 떠나있는 동안에도 나는 홀로 있지 않는 행운을 가졌다. 교생실습을 위해 온 영주샘이 등실샘 방에 지내게 되었다. 초를 켜놓고 머루주를 주고받으며 시작된 우리들의 환영회를 시작으로 편한 친구같이 함께 지냈다. 대구에서 오신 영주샘 시부모님들을 맞이할 때 정리되지 않은 내 방을 꼭 닫아 놓았건만 열어 확인 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얼굴이 붉어졌던 것. 어느 주말 저녁 덕산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영주샘이 선물해 준 빨래건조대를 들고 긴 얘기 나누며 집까지 걸어온 일.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나를 북돋아주고 얘기를 들어주던 영주샘은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떠났지만 우리 인연은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드디어 학교근처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손볼게 많은 작은 시골집이지만 화장실도 안에 있고 적당한 크기의 부엌이 있어 요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당이 있으니 햇볕내음 나는 빨래를 걸을 수 있을 테고 또 흙이 있으니 작은 텃밭을 가꾸어 볼 수도 있을 거다. 혼자 살게 되어 무서울까 하지만 마음 좋은 뒷집 할머니, 할아버지, 조금만 걸어가면 현숙샘, 은미샘이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든든하다. 여력이 된다면 고양이와 강아지도 기르고 싶다. 종종 샘들을 초대해 다과를 즐기고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도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나는 첫 보금자리를 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맞이할 설레임에 젖어 있다. **한디인**



세상에 종이가 있는 풍경

누구나 사소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었던 때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종이는 눈만 돌리면 어디에서든 만지고 쓰고 접을 수 있는 질감을 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텅 빈 여백으로 처음 자신 앞에 놓였던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에 꼭꼭 눌러 그어낸 선 하나로 무궁무진한 우주를 담기도 했고, 거기에서 나무가 숲이 일어서고, 사람이 걸어 나오고, 하늘과 구름이 펼쳐지고,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어디쯤에서 후루룩 새가 날아오기도 했고, 종이를 접어 하늘 가득 날리거나, 두둑한 딱지를 접어 땅바닥에 내려치며 즐거웠거나, 늦은 시각 쓰고 또 지우면서 써내려간 편지 한 장이 가슴 저린 시간에 닿기도 했습니다.

종이는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종이가 담아낸 오랜 기억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주하고 일깨우며 눈을 뜨게 합니다. 시간을 넘어 다양한 질감으로 공감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일상을 이어갑니다. 종이는 기억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같은 질감으로 눈물겹고, 치열하며, 분노하며, 감동하며, 느림합니다. 종이 한 장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들이쉬며 내쉬는 감성이 한결같아서 그 기억과 증언이 올곧고, 다정함과 너그로움이 정답고, 느긋함과 심이 편안합니다.

종이 한 장에서 수천수만 년을 이어온 문화와 문명, 그 장엄한 지혜를 만납니다. 사람들의 역사와 시대의 변화, 다채로운 관계들이 종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랍고도 경이로운 시간을 지금 공유하는 것입니다. 종이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때, 책 한 권을 읽을 때, 오래된 사진첩에서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가 넘쳐나도록 흔해져 특별할 것도 없는 것이 되고, 허투루 넘겨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숲이 내어준 소통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셈입니다. 종이는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숲이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준 것입니다. 제 몸을 내주어 여백을 만들어 준 것이고, 소통의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종이가 아직 나무였을 때, 숲의 가득한 생명을 품고 있었을 때, 바람 흐르는 대로 흔들리며 아무것도 거り낌 없는 자유이었을 때, 살아 있는 모든 것들과 늘 하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나무의 몸이고, 나무의 가슴이며, 나무의 생명 가득한 기억입니다. 종이를 펼쳐드는 순간 거기에는 필시 종이의 그라움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숲에 대한 그리움, 생명 가득한 숲에 대한 기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있다면, 지금 종이의 고향인 숲을 생각하십시오. 마음껏 소비하는 물건이 아니라 숨 쉬는 생명이라는 것이 느껴질 것이니.

- 누리솔

사랑을 외치다~!

장춘봉 _ 간디학교 교사(연구소)

첫사랑이란 주제로 글을 부탁 받았을 때,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사랑이라는 말을 몸을 머리로 알고 있을까? 더군다나 처음 사랑의 감정으로 인연을 맺은 때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중학교 시절 버스를 타고 학교 근처에서 내리면 다른 편에서 내리던 어여쁜 여학생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려던 기억, 그것이 첫사랑일까? 아니면 대학생이었을 때 수줍게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준 대학 후배와의 짧은 인연이 첫사랑이었을까? 이러 저러한 생각 끝에 한없이 뜨겁고 열정적이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삶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실 나에게 있어서의 첫사랑은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저함 없이 행동하고 조국을, 민족을,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했던 대학생 춘봉에게 조국은 '첫 사랑'이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나는 개인 테두리 안에 머무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인식했다. 아니, 인식했다기보다 두려움이 컸던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었다. 사랑이라는 개인의 감정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들어질까봐 아니면 사람과 혼자만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서툴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눈을 잘 돌려보지 않았던 것 같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흐름은 유지되었다.

‘바보처럼 사람을 사랑하자.’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그들과 많은 것들 만들어 나가고 경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생활에 있어서 최



우선은 그것에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숯기도 없고, 두려움도 많고, 서툴렀던 내가 사람에게 대한 사랑에서 개인에 대한 사랑으로, 그 힘들 것 같던 사랑의 확장이 의도하지 않게 나에게 일어나고 말았다.*^^*

작년 여름방학의 막바지 어느 날, 계절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풀을 베고 정리하고 있던 그날, 서로 만나게 되었고 작은 엽서 한 장으로 인해 작은 마음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마음은 나눌수록 커진다더니,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차지하는 크기는 점점더 커져갔더라는...

한없이 친밀해지고, 함께 있음이 편안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관계의 탄

생. 이것이 나한테는 새로운 모습의 '첫 사랑' 이 아닐까 하는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려보고 싶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전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다. 사전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여러 의미는 실제 사랑의 하위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대학 시절 나는 첫사랑을 소리 높여 많이 외쳤다. 새로운 모습의 첫사랑도 많이 외쳐 보려 한다. 사랑은 나눌수록, 이야기할수록 커지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행복하게 불러보시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래서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아멘**



현재진행형

-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000 _ 3학년

안녕하세요, 어찌다가 글을 맡게 되어버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이런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이고 더군다나 저는 '첫사랑'이라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라 글을 쓰기도 난감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인데요, 뭘 보고 반한건지... 저와는 성격도 많이 다르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하기도 해요.

어떠냐고요? 이런 게 사랑인지는 몰라도,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 목소리,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신경 쓰이고, 더 좋고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같이 대화하고 웃으면 세상이 밝아져서 괜히 오버도 하고... 또 밤마다 잠들면서 그 사람과의 다양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계속 실없이 웃거나 가끔은 우울해지기도 해요.

고백요?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차일피일 걱정도 되고,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 대화도 없다지만 괜히 선불리 고백했다가 마이너스 작용으로 괜히 어색해진다거나 하는 건 싫어요.

좀 알아 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표현이나 감정도 웬지 자제하고 있고, 또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다가가서 친해져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담요? 상담은, 쌤들은 저희와는 입장이 좀 다른 느낌이고 친구들은 딱히 도움을 준다고 하기 보단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 오빠들은 소문이 날까 두렵고... 역시 언니들에게 상담을 구하는 게 나으려나?^^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잘나서(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가끔은 '차이더라도 말을 하는 게 더 후련하고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말을 해버리기도 하고 싶고 정말 변덕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를 유지 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건 마치 도박 같네요. 성공하면 정말 행운이고 실패하면 아예 끝날지도 모르는.

그래도, 이 감정이 제게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확실히 달라지고 변화한 점이 많아요.^^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조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글을 쓰는 기회를 얻어서 쓰고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도 되는 느낌이고, 용기도 조금이나마 나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읽고 있다면, 제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

요. 그리고 그 외의 남자 분들도, 누가 당신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여자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부탁이니 상처 주는 말들 조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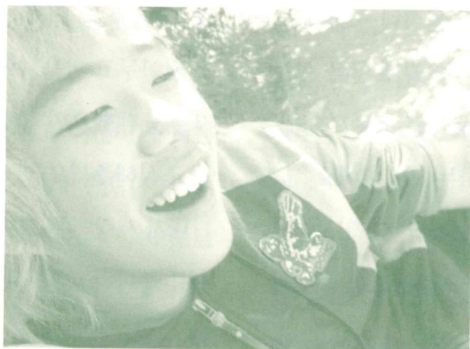
내가 사랑하는 그대, 알고 기억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2011**



나의 꼬꼬마 애인

이승헌 _ 1학년

난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한 적도 없고, 관심 있는 연예인들도 없다. 그래서 첫사랑이란 주제를 받았을 때는 '아, 뭐라고 써야하지'라는 생각뿐,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



다. 생각을 열심히 한 결과 나의 첫사랑은 아니지만 나의 어렸을 적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옛날이다. 7살 때 쯤이었나, 나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 그것 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형과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7살 때 나는 나의 꼬꼬마 애인하고 날마다 손을 같이 잡고 다녔고, 유치원도 손을 붙잡고 꼭 같이 다녔다.

아, 이걸 정말 웃긴 이야기이지만 그네에 앉아서 손을 잡고 1주일에 한 번씩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나와 그 여자 아이의 사이는 점점 더 좋아졌다고 한다. 허구한 날 결혼을 약속하던 우리를 형이 시샘하였고, 어머니가 즐거워하셨고 늘 우리 집의 화제였다.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즐겁게 생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여자 아이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싸웠다. 아 그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참 정말 심각하게 싸웠다는

것만 기억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결국 헤어졌다. 겉으로는 내색 하지 않았지만 좌절했던 나는 한 동안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여자 아이 생각 뿐이었다.

그렇지만 세상에 여자는 많다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 왔다. 여자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사귀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항상 남자 아이들과 놀고 여자라면 거부를 하였다. 그런 신나는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여자 아이의 고백을 받았는데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섰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영영 슬프게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 뒤로 난 여자 아이들이 싫어하는 남자 아이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다.

늦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한층 다가온 지금
우리 학교 커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나중이라도 다가올 나의 첫사랑에 대한 느낌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 **RAIN**



봉숭아 물 들이기

전지우 _ 5학년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 깊은 곳에 이뤄졌으면 하고 바라는 첫사랑은 꼭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유치원생 꼬맹이들에게도 말이다.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6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첫사랑이 처음 사귀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처음 사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제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 쬐던 작년 7월 말, 집에서 봉숭아물을 들인 적이 있었다. 집 앞 화단에 봉오리를 맺고 활짝 핀 봉숭아 꽃잎과 잎을 따서 명반을 넣고 잘게 뺐은 다음 손톱과 발톱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비닐봉지로 꼼꼼 감아 실로 고정시킨 후 내일 아침이면 손톱에 예쁜 물이 들것을 상상하면서 하룻밤을 지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몇



개의 손톱에서 빠진 봉숭아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빠진 곳의 손톱에는 아주 희미한 물만 들어 다음날 다시 들이곤 했었다.

그렇게 봉숭아물을 들인 적이 있었다.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봉숭아 물 들이기.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봉숭아물을 들이지만 이것보다 더 더욱 재미있는 것은 겨울에

첫 눈이 오는 날까지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옛 말이다.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 때문에 봉숭아 물 들이는 재미가 더욱 쏠쏠하다.

깊어가는 여름밤에 들인 봉숭아물. 12월 겨울날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에 “에이 뭐야 말이 돼?”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애태운 적이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면서 들였던 봉숭아물이 정말 첫눈 오는 날 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



아 (첫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내가 조금 어색하고) 많이 좋아했던 사람과 정말 사귀게 되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내가 그 때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정말 봉숭아물이 첫눈 오는 날 까지 남아 있으면 첫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옛 말이 맞아서 이루어진 걸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서로 마음이 닿아서 사귀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 사람처럼 다시 만나 사귀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이제 서서히 손톱, 발톱에 남아있던 봉숭아물이 모두 없질

무렵, 나는 다시 찾아온 여름을 맞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또 한 번 봉숭아물을 들였다. 이제는 나에게 첫사랑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 중에 빠질 수 없는 하나가 봉숭아물이 되었다.

모든 간디인들, 그리고 쌤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 첫 사랑을 이룬다는 것 보다는 가족 끼리 혹은 연인끼리 서로의 손톱과 발톱에 봉숭아물을 들여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간디인 여러분, 손이 싫어하는 매니큐어 대신 첫사랑의 설렘이 가득한 봉숭아물을 들입시다. ♥ **ASPIN**



물의 길, 생명의 길

이슬비 _ 기자, 5학년

2008년 봄, 경부운하예정지(한강-낙동강)를 중심으로 운하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청소년 20여명이 모여 강강수월래단을 이루고 '청소년 강을 노래하다'를 기획하게 되었다. '청소년 강을 노래하다'는 운하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알아보고 강을 느끼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종교인



100일 순례단처럼 운하에 반대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여태껏 생소하기만 하던 강을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다. 4월 14일 한강에서 출발해 5월 31일 낙동강까지 48일간 강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먹고 자고 걸었다.

우리의 48일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15킬로미터 넘게 걷고 대부분 야영을 했으며 물이 부족해 씻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또 식사 뒤에는 발우공양을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기계들과도

잠시 이별했다. 평소 누려오던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였다. 우리 스스로 이런 불편한 생활을 선택했던 것은 강과 자연의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였다. 강이 생명인지 자원인지, 운하가 만들어져도 되는 것인지 물음을 던지면서 그렇게 느리고 더디게 걸어왔다. 강강수월래단이 처음부터 운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다들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행이 한 달 정도 지나자 강강수월래단 전원은 운하에 반대하게 되었다.

여행은 이런 과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걷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민물고기도 잡기, 수달흔적 찾기, 수질조사 같은 활동들도 해보고 강과 관련된 강의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강을 보고 느낀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시와 노래, 글, 영상, 여행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네 번의

강변문화제와 문화행사도 있었다. 20여명이 함께 48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했다.

강을 따라 걸으며 새로이 알게 된 것들이 있다. 강을 만나기 전에 내가 기억하던 강 모습은 직선형이었다. 하지만 강을 직접 본 뒤에 우리나라 강은 꼬불꼬불하고 말 그대로 굽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래와 자갈이 많았고 수심도 생각보다 낮은 곳이 많아 운하를 만든다면 어떻게 파야하는 건지 걱정되기도 했다.

사람의 손에 의해 자연의 모습을 잃은 흔적들, 보(堡)나 제방이 있는 강도, 그렇지 않은 강도 만나보았다. 날씨가 좋아 하늘이 파랗고 구름도 동심동심 흐르고 강도 흐를 때 모래사장을 걷노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기도 했다. 기분만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도, 물고기도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소중한 곳이 바로 강이었다. 운하가 이슈가 되기 전, 이 여행을 통해 강을 만나기 전에는 강에게 많은 것을 받고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몰랐었다. 사람은 농사, 생활, 공업 같이 필요한 데로 물을 끌어와 사용한 뒤 더럽힌 물을 강으로 흘려보냈다. 그래서 오염된 강도 자주 볼 수 있었다.

강은 흘러가며 자정작용을 통해 스스로 깨끗해진다. 걸어가면서 눈으로 보아도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취도 난다. 때문에

운하를 반대하게 되었다. 우리가 걸으며 48일 즐겨온 추억도 생기고 강을 직접 만나는 소중한 경험도 했지만 걱정도 많이 생겼다. 강에 운하가 생기면 발생하는 이윤과 부작용에 대해서 남달리 공부하기도 했고 마음으로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운하는 단순히 뱃길을 만들어 이윤을 창출해내는 사업이 아니다.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닌 강이다.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강 없이는 살 수 없다. 강은 자원이 아닌 생명이다. 걸으며 강과 자연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과 사람도 자연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여태까지 강과 자연에게 부린 행패도 알 수 있었고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었다. 짧게 내다보았을 때 운하가 가져다주는 이윤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윤에 비해 강은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다. 그 이윤마저도 극소수 잘사는 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설사 이윤도 많이 나고 골고루 모든 이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강과 자연 없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외로워서 미쳐죽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광우병으로 세상이 어지럽다. 심란하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강으로 나와 마음의 위안을 얻어 봄은 어떠하실는지. **REIN**

마음의 학문, <마음공부>

홍지인 _ 1학년



태영철 선생님의 <마음공부> 수업

푸근한 웃음으로 보는 사람도 함께 웃게 만드는 태영철 선생님이 이끄시는 과목 <마음공부>. 이번 가을호에서는 <마음공부>를 만나보자.

<마음공부>는 말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는 수업이다. 태영철 선생님은 "자기 마음의 작용을 잘 알고, 마음을 잘 다루어 멋진 삶을 살게 도와주는 수업"이라고 설명하셨다. <마음공부>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명상법, EFT 활동과 같은 감정다루기, 자신의 비전이나 꿈을 찾기 위한 '꿈 찾기' 같은 활동이 다채롭게 이어진다.

<마음공부>는 대체로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마음을 다루고, 2단계에서는 몸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태쌤은 기초과정에 해당하는 1,2단계는 꼭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심화과정인 3,4단계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다지기도 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보통 3,4단계는 1,2단계를 배운 학생 가운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진

로를 그 쪽으로 정하거나, 자신의 내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다스리고 싶어 하는 학생이 배운다고 한다.

<마음공부>는 2007년 2학기에 5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만들어진 교과로서, 점차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08년 1학기에는 2학년 필수과목이면서, 2,3,4,5학년을 대상으로도 수업이 이루어졌다. 지난 1학기 수강현황을 보면, 3학년은 3/4, 4학년은 2/3, 5학년은 1/2정도가 들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들은 만큼 각자 소통이나 흥미도의 정도도 달랐다. 마음공부를 듣는 나머지 2/3은 "정말 좋았다", "흥미롭다"라고 한 반면, 또다른 1/3은 "어렵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수업과 관련 된 것 이외에도 누구든 고민을 푼 털어놓고 말하면 묵묵히 들어주시며 언제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상담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1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정한 선생님이로 다가 서시는 태영철 선생님 사랑합니다! 



수학교실 풍경

김수자 _ 간디학교 교사(수학 담당)

햇수로 4년째 제천간디학교에서 수학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소위 지식교과라 분류되는, 시험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부’ 하면 ‘국영수’ 부터 떠올리는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끔찍한 과목으로 인식되는 수학을 대안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를 지금까지도 고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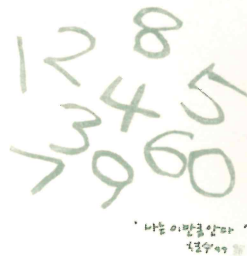
또한 아이들이 “ 쌤! 수학 배워서 뭐해요?”, “다른 이야기 말고 문제 풀어요.”라고 말할 때,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과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수학 같은 과목은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할 때... 심한 좌절감을 맛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고민을 나누며 해결책을 찾고자 [간디IN]에 <수학교실 풍경>이라는 꼭지를 만들어 계속 글을 쓰려고 합니다. 수학시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미있게 그려내면서 간디의 수학수업에 대해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학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일어났던 대화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노벨 수학상은 왜 없을까?



수자쌤 얼마 전 노벨상 발표 났더라? 봤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희 노벨상에 뭐뭐 있는지 알아?

학생 (와글와글) 평화상이요. 문학상이요. 물리상이요. 봉사상이요. 수학상이요...

수자쌤 그래... 너희가 말한 상중에는 있는 상도 있고 없는 상도 있는데, 노벨 봉사상 같은 거는 정말 있을 법 하지? 근데 없네. 평화상하고 좀 비슷한가 봐. 그리고 노벨 수학 상도 없어. 노벨 수학 상은 왜 없을 것 같아?

학생들 수학 상이 없어요? 이잉? 정말?

수자쌤 노벨상은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의학상, 노벨 경제학상만 있어. 이중에 경제학상은 나중에 생겼고.

학생 물리, 화학이 있는데 왜 수학이 없지?

수자쌤 왜 그럴까? 나도 이상한데 정말 없어. 가장 자연 과학의 언어이고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는 '수학'이 빠졌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 추측해봐.

학생 노벨이 다른 과목 다 잘했는데 수학만 못해

서 싫어했어요.

학생 누군가 빠뜨렸어요.

학생 물리, 화학은 간지 나잖아.

학생 수학이 너무 중요하고 다른 과학과목을 다 포함하니까 되레 뻘어요.

학생 노벨이 어렸을 때 누가 수학 가지고 노벨을 놀려서...

학생 노벨이 천재 과학자였잖아요. 근데 다른 경쟁자가 노벨보다 유일하게 수학을 너무 잘 한거야. 그래서 샘이 나서 수학 상은 절대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어요.

수자쌤 정말 기발한 상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디보자. 비슷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설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누구 말처럼 노벨이 살았던 시대에 천재 수학자가 한 명 있었던 거야.

학생 쌤은 맨날 수학자는 천재래.

수자쌤 근데 이 수학자와 노벨은 학문적 라이벌이었는데 이게 심해지면서 감정이 좀 쌓이게 되었지. 그래서 노벨이 생각하기에 노벨 수학 상을 만든

다면 이 지구상에 이 상을 받을 사람은 그 수학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안 만들었대.

학생 노벨 너무 해요. 뭐 그런 치사한 생각으로 안 만들었대요?

수자쌤 그러게. 나름 학문적 자존심이 아주 강했나 봐. 또 하나의 이유는 믿거나 말거나 인데. 노벨 와이프가 바람이 났었는데 그 상대자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대. 그래서 안 만들었다고 하네.

학생 쌤~~~ 노벨 너무 쪼잔 해요.

수자쌤 그래서 대신 수학계에는 '필즈상'이라는 상이 있어. 거의 노벨상에 버금가는 명예가 주어지는 상이지. 이 상은 노벨상과 달리 4년에 한번만 줘. 그러면 필즈상의 기준은 뭘까?

학생 뭐~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여서 정하겠죠?

학생 그럼 말이 통하나? 수학 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도 잘 못하는데 회의가 될까?

학생 엄청난 공식을 발명해야겠죠?

학생 근데 아직도 발명 못한 공식이 있겠냐?

수자쌤 필즈상이 독특한 거는 4년에 한 번씩 준다는 거와 함께 자격기준이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아마도 수학자들은 천재성과 함께 단명(短命)한다는 설이 사실인가 봐.

학생 쌤 몇 년 안 남았네. 도전해 봐요.

수자쌤 고맙다. 애들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줘서... --; 



* 필즈상(Fields Medal)은 캐나다 수학자 필즈의 끊임없는 노력과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상이다. Field교수는 모교인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하며 수학적 활동을 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토론토에서 열린 제 7회 국제수학자대회에서 전쟁 후 생긴 수학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회의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1928년 bologna에서 열린 제 8회 국제수

학자회의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기금을 마련하고 세계수학자들의 단합을 위하여 상이 제정되도록 노력하였다. 1932년 제 9회 국제수학자회의가 스위스의 주리히에서 열렸을 때, 그의 제자들이 정식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막상 이 상의 제정을 위해 노력한 Field교수는 회의 수주 전에 과로로 세상을 떠난 후였다. 필즈는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상의 기금으로 내놓았다.

이 상은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릴 만큼 수학계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4년에 한번씩 수여되며, 현재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해에 수상자가 결정된다. 만 40세 이하인 젊은 수학자들에게만 수상 기회가 주어진다는 전통이 있다. 1936년에 처음 시상되었으나, 2차대전으로 인해 14년간 시상이 중단되었다가 1950년부터 다시 시상이 이어졌다. 1962년까지는 2명의 수학자에게만 상이 수여되었으나, 1966년부터는 최소 2명, 최대 4명까지 주도록 규정을 변경되었다.

재생종이 사용이 아름답다



지구의 숲은 날마다 생각 없이 쓰는 하얗게 반짝거리는 '종이'를 위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으로 된 일회용품, 복사종이, 화장지, 화려한 종이 포장지,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책들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앞으로 3년 뒤, 2010년쯤이면 종이에 대한 수요가 15년 전보다 두 배나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은 종이 원료인 나무 공급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화 속도가 붙은 아시아 국가들까지 가세하면서 전 세계에서 종이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로써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원시림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이 소비는 지구의 미래를 그만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식물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산림파괴의 속도라면, 2100년에는 지구의 식물과 동물종 삼분의 이가 사라지고, 별목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거대한 멸종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펄프는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과 호르몬파괴물질,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있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종이는 숲이다.'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무시하고 함부로 쓰는 만큼 숲은 쓰레기가 되어 태워지거나 쓰레기더미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종이를 앞으로 한 장도 쓰지 말자.'가 아니라 '나무를 베지 않고 종이를 되살리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사용한 종이는 반드시 종류별로 분리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신문은 신문대로, 복사지는 복사지대로, 잡지는 잡지대로 분리하면 질 좋은 재생종이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종이를 사용할 때도 꼭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종이소비의 습관을 바꾸면 재생종이가 가진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얗게 표백된 반짝이는 종이를 선호하고 허투루 종이를 쓰는 동안 지구의 숲은 계속 싹들이 별목으로 파괴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단 임호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꾸므로 숲을 지키는 데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대한 벌목 톱을 침묵시키려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급격하게 종이소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고대원시림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종이를 사용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는 단체나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게 재생종이 사용을 요구하고,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되살리는 것은 되살리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것은 공들여 되살리는 손길에서 옵니다. 세심하게 마음 기울여 그 안에서 초록의 기운을 느끼고 헤아리는 만큼, 되살아오는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을 만나게 됩니다.

- 누리솔

여학우들의 희망, 생리통

김은정 _ 3학년

제천간디학교 운동장 풍경은 항상 남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고, 여학생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을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켜보고만 있던 여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이 바로 '생리통'입니다.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생리통'은 지난 2008년 1학기 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종목을 정해 연습과 경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3번꼴로 저녁 때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 '생리통'에서는 남학생들을 코치로 선정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생리통' 모임을 처음 시작한 멤버이자 회장을 맡고 있는 조하늘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 안녕 하세요 하늘 회장님, 생리통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항상 운동장을 남학생들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움이 컸어요. 여학생들은 벤치에 앉아 있는 수다를 떠는 역할만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만 더욱 커가고 있었는데, 방에서 시내언니랑 윤이 언니랑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들이 운동장을 뺏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회의를 하다가 '생리통'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 아, 그럼 세 명이 첫걸음을 뗀 거군요. 정말 궁금했는데 왜 동아리 이름이 '생리통' 인가요?

생리통은 여성의 상징이잖아요. 생리를 하면서 생리통을 참으면서 그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했다면 좋겠다는 뜻을 담았어요.

:: 생리통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국제패요!!(웃음) 이건 정말 큰 소망이구요. 사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생리통'에 들어 왔으면 해요. 저희는 회원을 받는 방식이 면접도 안보고 운동을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여학생 분들을 그때그때 받아요. 기회가 되는 분들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학교 여성분들이 운동장을 휩쓸고 구석구석에서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 와~~ 저도 학교에서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면 좋겠네요. 그럼 생리통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다른 학교와 경기도 해볼 것이고 다른 학교가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러 갈 계획이에요.

:: 다른 학교와 교류 괜찮은데요? 아 그럼 운동은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종목에서 경쟁이 컸어요. 올림픽 때문인지 양궁이나 리듬체조를 하자는 소리도 나왔고 미식축구, 야구, 농구 같은 여러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농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 달이 지날 때 마다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 될 예정이에요. 다음 달의 가장 유력한 종목은 야구나 미식축구일 것 같습니다.

:: 이제 인터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다는 멋진 한마디 해주세요!

여성들도 몸을 써야 합니다. 살 뺀다고 하지만 말고 몸을 부딪치십시오!! 여러분~ 이성을 깨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원한 여학생!! 간디 여학생!! 화이~~팅!!!

역시 언제나 늘 밝은 모습의 조하늘 회장님과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REIN**

새로 오신 푸른 푸릇한 생활 사감쌤

김유진 _ 기자(4학년)

지난학기 중반부터 예비사감으로 오신 두 분이 계셨는데, 이번 2학기를 맞아 사감으로 함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생활사감을 하신지 아직 두 주 밖에 안 된 남자 생활사감 오세익 선생님과 여자 생활사감 강미리 선생님을 한 번 만나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쌤들!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사감으로 지낸지 두 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함께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요. (웃으면서 서로 같은 말을 하셨다.)

:: 어떻게 우리학교에 오셔서 생활 사감을 할 생각을 하셨나요?

미리쌤 대전 청소년 드롭인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대안교육 공동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종종 간디학교 홈페이지에 들르곤 했는데 마침 모집 글이 올라와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세익쌤 졸업이 다가오면서, 삶에 대한 고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가 '한겨레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했어요.

:: 아 그렇군요! 혹시 이주일 동안 사감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미리쌤 야밤의 뽀글이라면 사건과 현지가 빌려준 아름다운 음악 듣던 일.

세익쌤 기숙사에 너무나 조그만 배추밭을 가꾼 일, 밤늦게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닌 일이 기억에 남아요.



오세익 쌤

:: 혹시 쌤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사감 역할에 대한 기준이 있으세요?

미리쌤 배경 같은 존재. 없으면 허전하고 가끔 돌아보는 생활 속에서 작게라도 깨달음을 던져주는 역할로 기억되고 싶네요.

세익쌤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가 삶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꿈꿔요.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강미리 쌤

:: 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웃음) 쌤들이 생활사감으로 오셔서 우리와 친해지면서 쌤들에게 느끼는 점과 우리들에게 느낀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세요.

미리쌤 선생님들에게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이끌어 주면서 새로운 것 또한 만 들어 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느낀 것은 자기중심으로 행동하고 조금 게으른 듯해요. 순진하고 음악에 소질이 많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따뜻한 마음들도 보여요.

세익쌤 일희일비의 연속.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일어난다는 뜻.)

:: 그럼 이제 사감으로써 자신의 각오 한마디를 말해주세요.

미리쌤, 세익쌤 강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뜨겁게! (치열을 악센트 주시며,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 오, 좀 무서운데 멋져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부탁이나 바라고 싶은 점이 있나요?

미리쌤 삶의 대한 깊은 고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간식하나에도 깊게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해요. 공동체 안에서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컸으면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녁에 일하시고 쉬어야 할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옆에서 맞장구도 치고 저를 잘 도와주셨던 '힘' 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관을 잘 이끌어 주시고 예쁘고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민**



북한 동포돕기 모금운동을 하면서

조하늘 _ 기자(3학년)

5000년이 넘게 한 형제로 살아온 우리의 가족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아사는 9월까지 대량 식량 지원이 안 될 경우 50만 명에서 6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북한 동포들의 대량 아사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느껴보지도 못한 것이므로 나에게는 별로 크게 와 닿지 않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정토회’에 부탁을 받은 엄마가 학교에 와서 영상을 틀어주고 학생들에게 100만인 서명을 부탁했던 날, 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모금함이 설치가 되었어도 나는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했다. 집도 가까워서 차비도 필요 없어 넉넉한 돈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적은 돈들도 방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아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고, 바쁘다고 늘 뛰어서 지나쳤던 학교 게시판의 게시물들을 찬찬히 구석구석 보게 되었다. 인권관련 작품 응모 전 포스터, 동아리원 모집 게시물, 동아리 소개 대자보를 보다가 결코 눈에 확 띄지 않을 A4용지 어머니가 놓고 가신 두 장에 깨알 같이 적혀있는 글들을 읽게 되었다.

그 글을 다 읽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나니,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을 북한 동포들을 힘든 사정에 대해 이제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지갑을 열어봤을 때는 이미 과자를 사 먹느라 돈을 다 쓴 후라 정말이지 후회됐다. 1만원이면 북한 어린이 10명을 일주일동안 살릴 수 있는데, 나는 배부르게 먹고도 입이나 달래자고, 모금함에 넣는 돈을 아까워하며 매점으로 달려갔던 일을 반성하며 그 전의 나처럼 아직 무감각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 빨리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나눴어야 하지만 늦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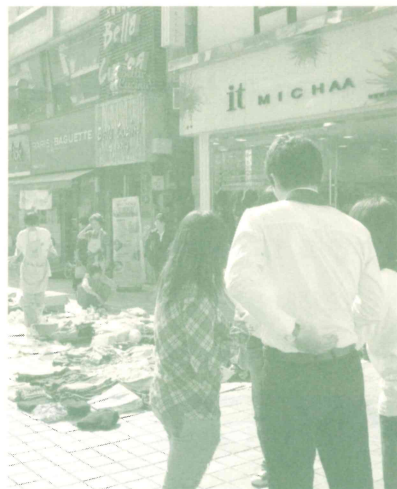
추석 가정학습이 끝나고 나면, 내가 속해있는 행사기획담당 회의 때, 열심히 의견을 내고,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그게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

겠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금운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작지 않은 소망을 간직하며 바라고 있다.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데, 5000년이 넘게 함께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

리와 같은 말과 글을 쓰는 사람들인데 난 아직 외교에 관한일이나 많이 복잡한 남북관계 같은 것은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다. 형제가 굶을 때는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아플 때, 힘들 때는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남북은 가족이라는 것을. **김정일**



충주에서 연 북한돕기 모금행사

‘105개의 자유로운 성과 조화’

-학생 수 80명+선생님 수 25분

이슬비 _ 기자(5학년)

높고 청명한 하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이제 곧 나뭇잎들도 커플들의 사랑을 질투하며 빨갛고 노랗게 물들게 될 것이다. 고독과 쓸쓸함의 계절 가을인 만큼 솔로들의 옆구리는 더욱더욱 시려울 것만 같다. 언제부터인지 우리학교에도 한 커플 두 커플 제각각을 찾는 이들이 생겨나고 지금은 학교밖에 애인을 둔 사람들까지 대충 세어보아도 10커플이 넘는다. 커플들 가운데는 자유분방하게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커플들도 있고 그런 표현 없이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도 있다. 그리고 이들의 애정행각에 대한 견해도 커플 수



만큼 제각각이다. 언짢은 사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부러운 사람, 이해는 하지만 민망한 사람,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등 애정행각을 포함한 성에 관한 모든 것들이 각자 선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 기숙사 내에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내 몸을 보이는 것이 싫거나 쑥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편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 동성 간의 스킨십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같이 제각각이고, 남녀의 견해 차이도 클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도 각기 다르다.

이 각기 다른 생각들을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잣대로 평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다 나은 견해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 내가 사람들과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상대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연인과의 스킨십에서는 꺼려하는 이들을 배려해 자제 할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건강한 성문화는 밝고 열려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인 것 같다. 낯 뜨거운 이야기라고 해서 쉬쉬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올 수도 있다. 심지어 막연한 두려움이나 환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 때문에 성에 대한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이해하고 자신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보다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

면 토론회나 세미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서로의 견해를 나누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성지식도 쌓아 두려움을 없애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대부분은 성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예전과 같은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성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2학년 주제프로젝트로 일부가 성을 주제로 공부하는 수업과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한 '10대의 성' 수업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다른 학년들은 성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 성에 관한 지식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토론을 할 여건도 마땅치 않은 것 같다.

문화의 밤이나 세미나를 통해 성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다음 학기부터는 성에 관한 수업이 다양하게 생겨나 궁금증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즐겁고 활발한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성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REIN**



9월 25일 | 개학

가나인 방식이 끝나고 간디인들이 드디어 개학을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곡식이 여물듯이 서로가 성숙해 진 여름을 간직하고 새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을 여였습니다.



9월 27일 | 성교육

간디인들 모두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성숙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처음이라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간디인들이 서로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9월 28일 | 기숙사 시설정리

개학을 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 사감 선생님들과 함께 2학기를 즐겁게 보낼 기숙사를 열심히 꾸몄습니다. 더불어 기숙사 주변과 기숙사 앞에 여름 내내 무성히 자란 풀들을 간디인들이 한마음으로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9월 28일 | 자기성장시스템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시작한 '자기성장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스스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기성장시스템을 간디인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29일 | 공동체 놀이와 캠프파이어

간디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모두가 서로를 믿고 함께 마음을 모아내는 재밌는 공동체놀이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함께 맛있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 밤의 하이라이트로 학년마다 개성 넘치는 장기자랑을 발표하고 즐거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 아이가
건너편 언덕을 비껴 흐르는
노을을 보며 '참 곱다' 했지요.
그 곁에 있던 아이
큰 눈을 그렇거리며
'너무 고와서 가슴이 저려와' 했지요.

한 아이가
사람 사는 골목에 별처럼 빛나는
와등을 보며 '따스하다' 했지요.
그 곁에 있던 아이
'너무 따스해서 가슴이 시려' 했지요.

어느 날 한 아이는
골목을 걷다가 한 아이와 마주쳤지요.
'네 눈망울은 너무 순수해' 했지요.
그 아이는 '네 가슴은 더 사람다워' 했지요.

사람 사는 언덕 그 소박한 아침에
한 아이는 '너를 사랑해' 했지요.
그 곁에 있던 아이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 마주하여 함께 자라자' 했지요.

* 깊은 가을입니다.

간디인들 모두 너그러운 사랑을 나누며 함께 자라는 시간 만드세요.

- 누리술



2008년 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 등으로 후원해 주신 소중한 마음들은 학교운영비(학생복지 및 학교시설)와 대안교육연대 지원금과 홈스쿨네트워크 운영비, 타 대안학교 지원금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썼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에 맞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 636명, 1,621건, 21,567,000원

(주)모닝스타 (주)한수섬유 (주)T.S.metal 기은희 강경선 강기갑 강남베드로병원 강덕수 강동우 강민택 강병임 강상진 강석도 강성률 강수들 강순자 강승구 강신현 강영금 강영상 강용중 강윤주 강은정 강은희 강유타 강지혜 강창규 강창석 고명철 고수원 고지철 고창순 고희미 공지성 곽용호 객지훈 구경란 구자민 국정훈 권도오 권수경 권숙영 권영미 권영숙 권지현 권춘현 권호정 금상호 길주연 김갑유 김경민 김경민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환 김국준 김기만 김길화 김남수 김남식 김남우 김대석 김대현 김동선 김동섭 김관경 김만우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명희 김명희 김문석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란 김미옥 김미정 김미희 김민진 김배홍 김백영 김병석 김상덕 김상의 김생연 김서영 김서현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혜 김성희 김수갑 김숙자 김순경 김순옥 김순임 김슬기로운 김승진 김승환 김영국 김영규 김영삼 김영숙 김영숙 김영우 김영진 김영한 김영희 김예란 김옥자 김옥주 김옥진 김용 김용철 김용규 김용규 김용필 김유신 김유태 김윤섭 김윤찬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장한 김장현 김재구 김재권 김정규 김정미 김정자 김준덕 김중용 김중우 김준혁 김준희 김준근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웅 김지함 김진오 김진용 김진우 김창석 김태홍 김평호 김학식 김학희 김현 김현숙 김현식 김현일 김현진 김혜민 김호연 김홍순 김홍일 김효진 김희교 김희균 남경혜 남경호 남궁원 남상일 남용기 남용우 남지화 남혜진 노경수 노경숙 노경환 노상규 노선영 노윤희 노희석 도기숙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류영숙 류춘희 마미경 마석훈 문성룡 문신호 문영미 문정훈 문현주 민병환 민영기 민유기 박경미 박경현 박기석 박동순 박동필 박미경 박미나 박민수 박복자 박봉규 박상만 박상현 박선미 박성수 박성열 박수정 박시훈 박연하 박영선 박영자 박영희 박익순 박유휘 박웅기 박유타 박인우 박재능 박재성 박정기 박정림 박정범 박정태 박종국 박종원 박진석 박진수 박진현 박진호 박창순 박채영 박철운 박현준 박현환 박형규 박혜선 박환홍 박홍식 방정태 방종환 방춘배 배민서 배진우 배필능 백동민 백동훈 백명기 백미숙 백승훈 변기영 변문기 변순영 변영애 변윤수 부상준 빈종일 서석중 서예경 서원일 서인자 서정현 서진섭 서희원 선영미 성정미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상희 손영미 손주영 손현석 송선경 송윤순 송준섭 송하동 신관수 신동식 신동운 신관주 신부순 신선영 신승임 신윤숙 신주영 신창삼 신현덕 신현정 심재용 심정현 안수환 안승범 안정환 안중복 안주연 안진희 안춘자 안태동 안향석 안호진 안병만 양서희 양성자 양소영 양수연 양신영 양해동 양후남 여동수(주) 엄도경 엄정미 여태전 연혜경 연계선 오강순 오기숙 오길환 오병갑 오보환 오익문 오전옥 오지혜 오태겸 오태겸 오현옥 왕정석 왕정한 우기백 우성호 원영준 원현구 유경오 유덕선 유상봉 유수진 유연철 유운모 유은미 유인수 유정훈 유준하 유준선 유지상 유한복 유향옥 육기연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석한 윤숙경 윤요성 윤은주 윤태일 윤한식 이강연 이강민 이강훈 이경란 이경숙 이광숙 이광용 이광일 이기하 이기현 이낙원 이덕순 이덕자 이도중 이명조 이명희 이명희 이무섭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마나 이미정 이민주 이병순 이병운 이보관 이상건 이상구 이상현 이상훈 이선애 이선재 이성록 이성호 이소안 이수경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순임 이승룡 이승민 이승섭 이승연 이승옥 이신혜 이양한 이영남 이영호 이영호 이요순 이요훈 이용복 이용 이우진 이윤숙 이윤승 이은신 이은주 이은희 이인숙 이일우 이재성 이정남 이정미 이정석 이정섭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주는 이준용 이진석 이진숙 이진우 이철배 이하영 이한진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혜림 이호진 이호창 이흥구 이희숙 이희정 임명희 임병포 임영배 임영빈 임오섭 임은숙 임진희 임형택 장규식 장명원 장미자 장성윤 장세희 장정애 장현정 장희숙 장희정 전광식 전국진 전미영 전병민 전수미 전영복 전완기 전완기 전종철 전혜영 전홍기 정길평 정난주 정다운 정덕희 정명숙 정문자 정미소 정병수 정병희 정성용 정성훈 정석현 정성옥 정순녕 정연희 정영수 정영숙 정영아 정영현 정영환 정영국 정우석 정의은 정의영 정의화 정인숙 정재금 정재민 정재운 정종미 정종숙 정종태 정지는 정태균 정해영 정현숙 정희도 정희정 조경선 조경숙 조경애 조경희 조규석 조동일 조만진 조배원 조복석 조상희 조성옥 조수경 조숙자 조영도 조윤호 조은 조은영 조재천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창용 조철원 조항미 조혜정 주성수 지연철 지재원 진경아 진상정 진성기 진영숙 진은주 진정란 차영순 차원희 차은경 채신자 천희진 최 경우 최귀중 최도연 최문택 최미숙 최미애 최상윤 최선희 최성철 최소정 최연호 최영준 최용 최은미 최인화 최재민 최재호 최재호 최정욱 최정윤 최중선 최준석 최진욱 최해만 최홍석 최화영 하명영 하두철 하승렬 하영아 하태광 한광덕 한동일 한상아 한상철 한승동 한승동 한용택 한점숙 한정민 한현 함선아 함재도 허금규 허성림 허성희 허영순 현은영 형임순 홍기봉 홍상미 홍수연 홍원희 홍윤숙 홍주영 홍창식 홍희경 황국덕 황들남 황명숙 황명숙 황선홍 황인숙 황지연 황지연 황홍호

•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043-653-5791, 017-209-4121 신은미)

• 주변에 소식지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후원인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 후원인들의 따뜻한 글을 기다립니다. 소식지에 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얘기를 담은 글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gandhi_cms@gandhischool.org)

• 주변에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기존 회원 분들도 학교로 연락주시면, 추가 등록 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학교홈페이지의 CMS후원란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연락주시면 신청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이밖에도 많은 도움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함이 송구스럽습니다. 혹시 누락되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간디 10주년 기념으로 학생들이 발간한 책을 받지 못하신 후원인께서는 학교로 연락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